



IGAS 2003
International Graphic Arts Show



차세대 프린팅테크놀로지 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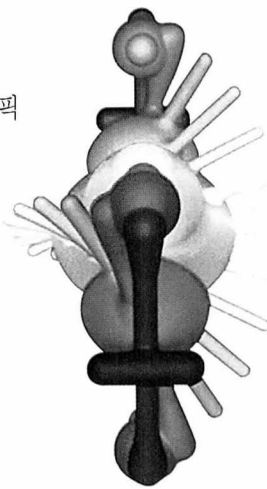
‘IGAS 2003’ 9월22일 개막

세계 4대 인쇄전시회 중 하나인 국제그래픽 아트종합기재전인 'IGAS 2003'이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전 홀을 사용해 오는 9월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개최된다.

또 (사)일본인쇄산업연합회 주최의 제1회 인쇄기술자회의가 같은 장소인 빅사이트에서 24일부터 3일간 열리며, 이번 IGAS 2003은 일본 인쇄기재단체협의회와 인쇄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다.

IGAS는 그동안 격년으로 개최되었는데 드루파(뒤셀도르프), 프린트(시카고), 아이팩스(버밍햄)에 이어 4대 기자재전의 하나로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주기를 4년으로 하고 기간도 5일에서 7일로 연장해 개최한다. 규모는 빅사이트 동서홀 전 홀을 모두 사용해서 400개사 4500부스, 입장객 수 15만명(해외 2만명)을 예상하고 있어 과거 전시회에 비해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IGAS의 큰 특징은 신기술·표준화·환경 등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소개하는 벤처코너의 개설, 기조강연 및 세미나 개최 등도 병행해 열린다는 점이다. 또한 전시기간 중에는 일본어와 영어로 데일리 뉴스도 배포할 예정이다. '프린트 미디어의 미래를 향해'라는 테마로 개최되는



IGAS 2003은 많은 볼거리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쇄산업의 디지털기술 발전에 의해 인쇄는 그 영역을 광의의 의미에서 '정보'의 영역으로 넓혀가고 있다.

이 영역의 확대에 의해 인쇄에 관련된 기술은 정보에 관련된 기술과 융합돼 새로운 인쇄분야로의 기술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번 IGAS 2003에는 이러한 차세대 테크놀로지나 비즈니스모델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이나 팀이 최신의 기재·워크플로우를 제안하는 장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IGAS 2003 이벤트 일정은 9월22일(월) 개최식, 기조강연 및 특별강연, 제품·기술세미나, 합동간담회, 23일(화) 특별기획세미나A, 제품·기술세미나, 24일(수)과 25일(목) 인쇄연합회 주최 제1회 인쇄기술자회의, 26일(금) 특별기획세미나B·C, 제품·기술세미나, 출판사 맥주파티, 27일(토) 특별세미나D·E, 제품·기술세미나 등이 마련돼 있다.

한편 새롭게 디자인된 심볼마크는 새로운 인쇄의 시대를 알린다는 의미로 21세기의 IT 혁명과 디지털화로 인한 다양성에 대응하고 변형하는 인쇄산업의 미래를 상징하고 있다.